

불자 세상보기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요즘 사람들이 모였다하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대체로 당장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 두 손을 들어 환영하는 반면, 필자와 같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측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근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수노조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학생이 중심이 됐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운동을 확대해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 전 정식 출범해 야당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보다 능력위주 사회를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으로 부터 시작되어 이제 전 국민의 토론장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들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비리재단 복귀 저지자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교 의무교육화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소통하고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는 모두 332조6000억원이다. 이를 다 반영하면 올해 예산보다 7.6%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는 반값 등록금 예산 등 대형 사업 요구안이 빠져 있어 실제로는 증가율이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모든 재원의 근원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한다면 커다란 예산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경비나 예산낭용 등을 없애는 동시에

대학 자체 재산형성보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대학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들이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 보다는 무사안일적인 비효율적 경영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퇴출을 함으로서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반값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이는 곧바로 고학력 청년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88만원의 최저 임금도 못 받는 청년 백수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야말로 학력 인플레이가 초래한 심각한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반면, 산업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엔지니어나 기능인들은 없고 현실성 없는 대졸 고학력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전 국민을 대학으로 진학시켜야 하는지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지나친 복지정책의 결과로 학력 인플레이의 고통을 경험한 핀란드의 경우가 우리에게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 82.8%보다 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다. 높은 교육열에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사회 풍토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여러가지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으니 대학진학률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점은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과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 국민이 대졸자가 되기보다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대졸반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기능이 되어도 충분히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고 사회적인 편견이 없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그 많은 국민이 대학을 진학하여 대졸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는 일단 무조건 대졸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社說

서산 대사 선양의 당위성

서산 대사는 사명·치영 대사와 함께 호국의 삼승(三僧)이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와 민족을 구한 장본인이다.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통제사였지만 서산 대사는 '팔도' 심육종도총섭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대사의 활약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또, 조계종 스님들이 모두 서산 대사의 문하라 할 만큼 조선시대 불교 법맥을 잇는 중요한 선지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서산 대사의 선양은 일본 강점기에 맥이 끊긴 이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전행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는 서산 대사를 '제자 사명 대사와 함께 적진을 수차례 넘나들며 신봉을 부리던 스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000여 무명의 승군이 활약했지만 대부분 승군의 활약은 커녕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TV프로그램 '불멸의 이순신'이 그 예이다.

이런 가운데, 해남 대흥사 주지에 재임한 범각 스님이 지난 주지임기에 이어 서산 대사 선양사업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최근 출간된 소설 '서산 대사'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옛 선인이 선양함은 현세의 이득을 취함이 아니라 후대에 귀감이 되기 위함이다. 호국의 주인공을 선양함은 불자·비불자를 초월해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해야 할 일이다.

7월 13일, 일간지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상이군인과 악수하는 사진이 대서특필됐다. 상이군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를 구하려 목을 던졌다가 팔을 잃고 의수를 하게 된 아서 페트리 상사. 아서 페트리 상사에 최고 명예 훈장인 영광의 메달(Medal of Honor)을 수여했다.

2011년 오늘, 우리는 사명 대사와 5000여 무명의 승군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분을 다하는 출·재가여야

7월 20일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중흥을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일문 스님은 "스님들이 결정권을 갖고 불교계의 모든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직접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조계종 총무원에 예로 들어 비판했다. 총무원이 직접 나서서 수고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으라는 조언이다.

이 같은 관념의 기저에는 한국불교계에 만연한 빼돌려진 보시행이 존재한다. '부처님일'이라며 재가자에게 일을 시키고 보시 개념으로 환산(?)해 버리는 경우가 그것이다. 세속의 금전 출납을 초월해 무형의 복전(福田)에 빚낸 선행이 유행하다보니, 점차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직접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의 개선을 위해서는 토론자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의 "역할의 재분배에 우선해 교단이 재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하 수직관계로 고착된 출·재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피상적인 역할의 분배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 우선해야 한다.

제33대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소통과 화합'이 사부대중을 한마음으로 이끌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러려면 상호 신뢰가 우선해야 하고, 서로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김진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

태생적으로 열이 많은 필자는 여름, 특히 요즘과 같은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 차라리 지겨웠던 장마가 오히려 그리워진다.

이미 방학을 해 모든 것을 다 접고 서늘한 산을 찾아 마음껏 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도 간절할 때이다. 그러나 써야 될 논문과 벌여 놓은 다양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저 컴퓨터 앞을 밤새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필자와는 정반대의 체질을 가진 집사람과 작은 딸 덕분에 집에 에어컨도 설치 못해 선풍기와 차갑게 얼린 보아차에 의지해 밤새 원고와 씨름하다가 유학시절의 폭염을 떠올려 본다.

필자가 유학했던 중국 남경(南京)의 여름은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힐 정도이다. 공식적으로 섭씨 40도 이상이면 휴무로 들어가야 한다는 법규정도로 한 여름에는 언제나 39도 이하를 예보하지만, 사실상

무더위에 빨래 말리려 난로 켜야했던 남경

온도계는 항상 40도를 훨씬 넘어선다.

더욱 심한 것은 남경은 중국에서 가장 큰 강인 장강(長江; 중국의 일반인들은 양자강(揚子江)의 명칭을 잘 모름)이 관통하여 습도가 늘 80%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견디기 어렵다. 그 더위에도 빨래를 말리기 위해 전기난로를 켜야 한다면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리 더워도 한밤중에 공원 등으로 산보를 하면 상쾌함을 맛보지만, 한 여름의 남경은 한밤중에도 밖에 나가는 순간 숨이 탁 막혀버린다. 남경이 중국 '3대 화로(火爐)'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그래서 남경에서는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남경의 한여름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유학생들은 대부분 귀국하지만, 필자는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그 무더운 여름을 몇 차례 보냈다.

장학금의 혜택이 전혀 없는 중국 유학은 시간이 그대로 돈이라는 인식으로 가급적 유학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당시 필자가 머물던 숙소에도 에어컨

이 있었지만, 지나친 더위는 용량이 너무 적은 탕인지 겨우 땀을 멈추게 할 뿐, 결코 충분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지는 못했다.

대신에 냉장고는 직접 끄지한 것으로 구입하여 냉동실에 항상 보이차나 오뎬차를 여러 통에 담아 얼려놓고 그를 마시며 더위를 견뎠는데, 지금도 여름에는 항상 차를 얼려 마시는 습관을 갖게 하였다.

한번은 그 무더운 한여름에 북경에서 유학하던 후배가 남경을 구경하겠다고 청해 극구 반대했지만, 기어이 남경에 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배는 남경의 폭염에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두 번 다시 여름날에 남경은 오지 않겠다는 맹서를 하고서 북경으로 돌아갔다. 북경도 여름에 상당히 덥지만 남경과는 달리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비슷한 온도라도 체감온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새벽녘에 이른 지금은 이미 더위는 사라지고 장문을 통해 선선한 바람이 밀려들어온다. 남경의 여름에서는 새벽녘에 오히려 더욱 더위집을 경험했던 터라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름은 남경에 비한다면 차라리 애교의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미 한국에 귀국한 지도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경에서의 여름은 아직도 숨이 막히는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새벽까지 쓰던 논문이 바로 8월중에 중국 호남성(湖南省)의 장사(長沙)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것이다.

주관학회에서 보내온 일정표에는 모택동(毛澤東)의 고향인 소산(韶山)의 참관도 잡혀 있어 사투 기대되지만, 남경의 더위를 떠올리면 은근히 걱정이 된다. 장사 역시 남경 못지않게 덥다는 중국권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우천월(吳牛喘月)'의 성어(成語)가 떠오른다. 여기에서의 '오우(吳牛)'는 바로 남경지역에서 사는 물소를 뜻하는데, 남경의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태양과 비슷한 달을 보고도 숨차한다는 의미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보아도 놀란다'는 우리의 속담과 유사한 말이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 남경의 폭염이 예뻐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얼음차를 마시며 온 마음으로 책을 보았던 그 시절이 너무도 행복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판부 실시간 뉴스 연분뉴스 불교포탈 부디피아 소형출판 연분출판부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土)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상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